

전기제품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 추진

「전기제품 안전관리」 기업이 책임지고 소비자가 감시한다.

문의 | 산업자원부 전기용품안전팀 02-509-7242 / 7245

■ 프린터·오디오 등 위해성이 낮은 전기제품과 신개발 전기제품을「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 현재, 주요 전기제품(247개 품목)에 대하여는 제조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자의 안전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다양한 웰빙 전기용품과 융·복합 전기제품 등의 출시가 급증하여 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으로 인해 제품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그동안 인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했던 신제품과 기존 안전인증대상 전기제품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고, 현행 안전인증 대상품목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다.

* 정정합니다

2007년도 2월호 협회지(32페이지)에 인쇄된 시간대별 구분음영 개선표 중 최대부하와 경부하가 반대로 표시됨에 따라 정정하여 홈페이지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년 8월부터 시행되는 유럽 CE마크 인증 지침서로 활용

전기 · 전자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배려설계 국제표준 가이드북 출간

문의 | 산업자원부 전기전자표준팀 02-509-7294

■ EU의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환경배려설계지침 (EuP)이 '08년 8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등 14개 전기 · 전자제품은 EuP기준을 만족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유럽내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 EuP 지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환경배려설계를 의무화하는 환경규제로서 폐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WEEE)의무화,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표시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

※ WEEE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Equipment

RoHS :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uP : 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 using Product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 최갑홍)은 중소기업?전자기업이 EuP에 대하여 선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중소기업을위한 전기전자 제품의 환경배려설계 국제 표준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 중소기업에서 제품 개발 · 생산시 에너지 효율 및 환경 배려 설계에 대한지침서가 될 이번 가이드북은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최신 환경규제와 국제표준화 동향 및 세부절차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대다수 중·서민층 아파트, 상가아파트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도 폭 넓게 인정

문의 |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팀 02-2110-5544

■ 아파트 전기요금 부과방식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동설비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전기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 할증제가 일부 보완을 거쳐 예정대로 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제도는 공동사용량에 주택용 요금이 아닌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파트에만 적용

■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동 제도의 시행에 앞서 예상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앙난방·상가 아파트 등 시행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아파트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보완 방안을 마련함

○ 지하주차장 등 공동시설의 대형화·현대화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는 편의시설이 없어도 공동사용량이 월 100kWh를 초과하여 할증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 적용기준을 종전 세대당 월 100kWh초과에서 월 200kWh초과로 상향조정

등유 소비는 18% 급감, 납사만 13.8% 증가 지난달 휘발유,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의 소비 감소

문의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 02-2110-5456

■ 2007년 3월 2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휘발유, 등유, 경유, 병커-C유, 항공유 등 주요 석유제품의 소비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납사의 소비 증가로 전체 석유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7% 증가(72,998천 배럴)(납사를 제외할 경우 3.1% 감소)

■ 소비가 감소한 제품별로는,

* 제품별 감소율(%) : 휘발유(△0.3), 등유(△18.1), 경유(△0.5), 병커-C유(△0.4)

○ 【휘발유】근해어업 단축과 승용차 생산 감소에 따라 산업부문 휘발유 소비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휘발유 차량의 증가에 따른 수송부문의 소비 증가로 전체 소비는 소폭 감소

* 연근해어업 휘발유 소비량(천배럴) : '06.1) 75 → '07.1) 53(△29.3%)

* 산업부문 휘발유 소비량(천배럴) : '06.1) 164 → '07.1) 123(△25.0%)

* 휘발유 차량등록대수(천대) : '06.1) 7,825 → '07.1) 7,949(↑ 124, 1.6%)

○ 【등유】LPG,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용 연료의 등유 대체로 가정·상업부문에서 등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실내등유(△17.9%)와 보일러등유(△19.5%)의 소비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

* 가정·상업부문 LPG 소비량(천배럴) : '06.1) 2,965 → '07.1) 3,040(2.5%)

○ 【경유】산업 및 도로 수송부문의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적 외항수송업의 소비 증가로 소폭 감소

* 도로 수송부문 경유 소비량(천배럴) : '06.1) 8,286 → '07.1) 2,048(△75.3%)

* 내국적 외항수송업 경유 소비량(천배럴) : '06.1) 127 → '07.1) 6,495(5,014%)

